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생명나눔 열기, 음악과 함께 가을 산사 물들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⑩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서
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희망의 내일' 주제로 열려
장학금 · 환자 치료비 전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오늘, 희망의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봉선사 주지 초격, 일면장학회 이사장 일관 스님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배우 남일우, 김용림 부부, 생명나눔 후원회원과 불암사 신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대면 음악회인 만큼 체험과 공연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대거 몰리면서 불암사 경내가 오랜만에 북적였다.

행사에 앞서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북돋아줄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과 마하나눔소리의 북공연이 이어졌다. 화려한 북공연은 많은 관중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내면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01년 창립된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열정을 가진 학인스님들에게 공부와 수행 정진을 지원하는 한편 불자학생들도 지원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일면장학회의 명칭은 前 조계종 호계원장과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장학금 지원은 올해로 22회가 됐으며 매년 전후반기를 합쳐 약 30여 명에게 장학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은 학인스님 9명, 학생 8명 등 총 17명에게 장학금 12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난소낭종으로 치료가 급한 김모 씨를 이달의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 100만 원과 일면 스님 자서전, 단수를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의 환자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센터가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일면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인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자 생명나눔 축구단 단장인 추성호 부회장은 일면 스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응원했다.

본 행사가 마무리 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가수 최정철, 배아현, 신성, 김소유, 양지원, 은가은 등이 출연해 선선한 바람이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사회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날 음악회는 BBS불교방송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의 감동뿐 아니라 생명나눔의 참뜻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 준 기증자와 공로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실천하는 문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또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송산노인복지관과 마하무용단이 운영하는 바자회도 열렸다. 의류, 신발 등 생필품과 국수, 파전 등 먹거리 판매수익은 전액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1994년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면장학회는 학인스님과 학생 17명에게 장학금 1280만 원을 전달했다.



가수 최정철, 배아현, 신성 등이 출연 가을밤을 풍성하게 했다.


관람객들로 불암사 경내가 오랜만에 북적였다.





2022 제3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추천

생명나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추천해주세요

시상부분 대상,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시상내역 대상(500만원), 홍보상(100만원), 생명상(100만원), 나눔상(100만원) 및 상패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시 상 2022년 11월 19일(토) –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행사 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문 의 02-734-8050 / www.lisa.or.kr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